

# 2000년대 이후 한국 무협 소설의 몇 가지 흐름\*

정 준 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 국문초록

이 논문은 2000년대 이후 한국 무협 소설의 여러 경향을 살펴본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새로운 경향의 무협 소설이 등장한 이후 무협 소설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무협 소설이 주목받고 신진 작가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2000년대 이후 무협 소설의 경향은 더욱 다양해졌다. 무협 소설이 독자의 욕구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소설이라는 점에서 이들 다양한 경향은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를 엿볼 수 있는 창이 될 수 있다. 성장소설의 쇠퇴, 복수가 사라진 무협 소설, 대립 구도의 변화, 타락한 정파, 비무림인의 활약, 환생한 주인공, 한국인을 주인공으로 한 무협 소설 주인공의 등장, 강시의 습격 등이 이들 새로운 경향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무협 소설의 이런 경향이 단지 무협 소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여타의 대중문화 장르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공통된 경향의 배경에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해석할 하나의 관점을 얻고자 하는 욕망과 막연한 불안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 현실에 대한 불만을 대리로나마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망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흥미로운 것은 현실에 대한 불만을 기적적으로 해소할 계기를 꿈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가 합리적이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 주제어 ■ 무협 소설, 신무협, 성장소설, 정파, 비무림인, 복수, 환생, 강시

\* 이 논문은 2022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junchung@mail.knu.ac.kr

## 1 들어가며

무협 소설은 판타지, 로맨스, 추리, SF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장르 소설에 속한다. 전통적으로 이들 장르 소설은 이른바 순문학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아 왔다. 그 중에서도 무협 소설은 다른 장르 소설에 비해서도 더욱 저평가되었던 것이 사실이다.<sup>1)</sup> 이는 무협 소설이 우리 사회의 많은 남성들이 청소년기에 스쳐 지나가듯 탐닉했던 장르이고 특히 그들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했던 소설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1980년대까지 우리 사회에서 유통되었던 무협 소설 중 다수가 변안 소설 내지 중국 무협 소설의 각색판이었고 그 작가조차 분명치 않았던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sup>2)</sup> 마치 그 시절의 만화가 그랬듯이 무협 소설도 대본소의 키키향 구석에 틀어 박혀, 또는 부모님 몰래 대여해 이불 속에서 숨어 읽던, 그리고 읽는 순간 잊어버리고 마는 가치 없는 소설로 평가받았다. 당연히 이 무협 소설에 진지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우리 무협 소설은 큰 변화를 겪기 시작한다. 무협 소설의 유통 경로가 대부분 대본소나 당시 급격하게 늘어났던 도서 대여점이라는 점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새롭게 발전하던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등에 업고 과거와는

- 
- 1) 무협 소설에 대한 저평가는 무협 소설과 관련한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1969년에 문학평론가 김현이 무협 소설의 독자와 관련된 글을 쓴 적은 있으나, 대만 작가 김용의 무협 소설이 인기를 얻은 이후 중문학계에서 중국 무협소설에 대한 일련의 연구가 진행된 것을 제외하면 1990년대에 들어서기까지 우리 무협 소설에 대한 연구가 다시 나타나지 않으며 그 이후에도 몇 권의 연구서 정도가 고작일 뿐 본격적인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2) 1980년대까지의 주요 변안소설의 목록에 대해서는 전형준(2003)과 이진원(2008, 11장)의 정리를 참조하라.

다른 새로운 경향의 무협 소설이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이다.<sup>3)</sup> 1995년 4월 좌백이 『대도오』를 발표하고 이어 풍종호와 진산, 장경 등과 같은 일군의 작가들이 일련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신무협이라고 불리웠던 이들 새로운 경향의 무협 소설은 과거의 무협 소설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여 주었다(전형준, 2003, 83쪽).

먼저 신무협은 작가가 분명하지 않았던 과거의 무협 소설과 달리 누구의 작품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물론 그 작가의 이름은 대부분 필명이었으나 적어도 작가와 작품의 연결은 분명해진 것이다.<sup>4)</sup>

두 번째로 내용에서도 신무협은 전통적인 무협 소설과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좌백이 [생사박]에서 언급했듯이 전형적인 무협 소설에는 “계피학발의 노신선이 있고, 걸음걸이 하나로 일국을 무너뜨릴 정도로 아름다운 절세가인이 있고, 의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쾌히 던지는 협사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같은 절세의 미남, 천하의 기재, 불행을 밟고 일어서서 천하의 기원을 얻으며 보는 사람 모두가 친구가 되거

3) 대만이나 홍콩 무협 소설의 번안물이 아니라 한국 작가에 의해 창작된 한국 무협 소설이 나오기 시작한 정확한 시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사실 이처럼 시작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무협 소설에 대한 평화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전형준은 한국 무협 소설이 1977-78년경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며 을제상인의 [속팔만사천검법](1979)이 창작 무협 소설의 붐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고 주장한다(전형준, 2003, 59-60쪽). 반면 이진원(2008)은 꼼꼼한 사료 정리를 기반으로 한국 무협 소설의 기원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고자 하지만 그 역시 을제상인의 작품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한편 무협 소설의 유통경로와 관련하여서는 대본소와 도서대여점이 주를 이루었으나 일부 예외도 있다. 1986년에 고려원에서 김용의 『영웅문』을 번역, 출판하여 큰 성공을 거둔 후 양우생과 고훈 등의 번역 무협 소설이 서점에 본격 진출하였고, 1993년에는 서효원의 『대자객교』가 국내 작가의 창작 무협 소설로 역시 서점에 출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재국(2003, 203쪽)을 참조하라.

4) 사실 작가와 작품의 연결은 1980년대 무협 소설에서도 존재했던 현상이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많은 작가들이 초기 작품에서 대만 작가의 이름을 차용했으며 을제상인의 고백에서처럼 이른바 공장제로 작품을 생산하여 엄밀히 따지자면 자신의 작품이 아닌 것에 자신의 이름을 거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는 무협 소설에서 뿐 아니라 당시 인기를 얻었던 만화에서도 유사하게 찾아볼 수 있었던 현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진원(2008, 13장)을 참조하라.

나 부하가 되고자 머리를 숙이는, 빛나는 인물이 있어야 했다.”(좌백, 1995, 109-110쪽)<sup>5)</sup> 하지만 신무협에서는 이 중 전부 또는 최소한 상당수의 요소가 사라진다. 당장 좌백의 『대도오』의 대도오, 『생사박』의 흑저 등은 모두 절세의 미남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며 별다른 기연을 얻지도 않는다. 또 좌백의 작품에서는 절세가인과의 연애담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장경의 『천산검로』(1997)에 나오는 주인공 늑유온도 절세의 미남은 아니며 그의 연인이 되는 곽운경 역시 아름다운 여인이기는 하지만 절세가인으로 묘사되지는 않는다.

세 번째로 전형준(2003)이 당시 각광받았던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을 이용해 “주변적인 것의 부상”이라고 규정한 적이 있듯이 신무협에서는 전통 무협 소설에서의 주류가 쇠퇴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통적인 무협 소설은 이른바 정과 사 또는 정과 마 사이의 대립을 주축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즉 정도를 걷는 선한 주인공이 동료들과 힘을 합해 악인과 그가 속한 집단을 징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도 세력은 전형적으로 구파일방이나 주요 세가이며 악인은 사파 세력이나 마교였다.<sup>6)</sup> 사파 세력이 뚜렷한 이념적 기반이 없는 일종의 조직 폭력배 집단이라면, 마교는 국가에 의해 공인받지

5) 김재국(2003)도 유사하게 전통적인 무협 소설의 도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우선 주인공은 용모가 준수하고 천재적이며 미인을 동반하고 기연을 얻고 그리고 무림천하를 통일한다는 것이다. 서사구조적 측면에서도 ‘가문이 해약을 당함->복수를 결심함->시련을 겪음->기적적으로 살아남->기연을 얻어 복수함’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김재국, 2003, 207쪽)

6) 구파일방이란 주요 정도 문파를 일컫는 표현으로 9개의 문파와 1개의 방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일방의 방은 거지들의 문파로 상정되는 개방이 항상 꺾이지만 9개의 문파는 작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그 중 소림과 무당, 화산, 아미는 언제나 구파에 포함되는 문파이지만 청성과 점창, 곤륜, 공동, 형산, 종남, 해남은 작가에 따라 구파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 또 세가란 대를 이어 무공을 갈고 닦아 유명해진 가문 집단을 이르는 것으로 남궁세가, 사천당가, 하북평가, 제갈세가, 모용세가 등이 대표적이다. 구파일방이 사승의 관계 즉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면 친족집단이 주축을 이루는 세가는 혈연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니고 있다.

못하고 사교로 규정된 종교 세력을 일컫는다. 이런 구도에서 주인공은 대개 정도 세력의 일원이거나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협력하는 존재였으며 사파나 마교에 대항하여 정의를 실현했다. 무협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파사현정”이나 “사불승정”이라는 표현은 정도의 최종적 승리를 압축하는 표현이다.

그런데 신무협이 등장하면서 이런 구도는 점차 바뀌기 시작한다. 신무협의 시작을 알렸다고 평가받는 좌백의 『대도오』에서 주인공 대도오는 구파일방이나 세가 중 어느 곳의 일원도 아니며 그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도 뚜렷하지 않다. 그는 다만 자신과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지키려고 노력할 뿐이다. 이후 발간된 여러 신무협 작품에서도 구파일방과 주요 세가의 활약은 그리 두드러지지 않는다.

신무협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후 수많은 작가와 작품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여기에는 당시 발전하던 인터넷이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초기 PC통신에서부터 이미 무협 소설 동아리가 형성되었고 이 동아리에서 신진 작가가 작품을 발표하면 그 중 평가가 좋은 작품들이 무협 소설 전문 출판사에 채택되어 책으로 발간되고, 이 책이 IMF 환란 이후 급격히 늘어났던 도서대여점으로 퍼져 나가 일반 독자를 만나는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sup>7)</sup> 그 결과 2000년대 이후의 많은 무

7) 1979년에 을제상인이 무협 소설을 발표했을 당시 무협 소설 한 질의 판매량은 평균 700-1000 질이었고 을제상인의 작품은 그 3-4배가 판매되어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다고 한다(이진원, 2008:216). 이는 당시 무협 소설을 대여해 주던 대본소의 수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데 작품마다 판매 부수가 다른 것은 인기 작품의 경우 찾는 사람이 많아 대본소에서 한 질 이상을 비치해 놓았던 것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IMF 환란 이후 실직자들이 도서대여점을 차리면서 한때 대본소와 도서대여점의 수가 25,000개 이상으로 되었다고 한다. 이는 그만큼 무협 소설의 시장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2000년대 이후 무협 소설의 대중적 인기를 보여주는 사례로 중앙일보에서 열 번의 시리즈로 연재한 '우리 시대의 이야기꾼-무협 2.0'을 들 수 있다. 시리즈를 시작하며 중앙일보는 “음지의 문학” 한국 무협소설이 ‘콘텐츠의 꽃’으로 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0년 3월 16일부터 매주 한 번씩 초우, 한백림, 백연, 장담, 권용찬, 남궁훈, 오재지 등의 작품 세계를 조명한 바 있다.

협 소설들은 앞의 몇 가지 특징들만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다양한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 글은 그런 경향들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짚어보고 그 의미를 해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무협 소설과 독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정리해 보자.

## 2 무협 소설과 독자

무협 소설의 독자들은 왜 무협 소설을 읽는 것일까? 김현(1969)은 무협 소설의 독자를 중산층으로 상정하고 그들의 허무주의가 무협 소설을 읽는 행위 속에서 표출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전형준(2003)이 지적하듯이 무협 소설의 독자는 매우 다양하므로 그들의 욕구를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sup>8)</sup> 더불어 무협 소설에는 여러 종류의 경향이 혼재하고 독자에 따라 선호하는 경향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면 각 경향의 무협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그들이 표출하는 욕구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sup>9)</sup> 따라서 이 다양한 독자들의 상이한 욕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나 이 연구에서 그런 경험적 연구를 시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그저 개괄적인 수준에서 무협 소설과 독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8) 실제로 김현이 글을 썼던 1960년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한국 무협 소설이 각광받았던 1980년대의 주요 무협 소설 독자는 청소년이었다는 정황 증거들이 다수 존재한다. 한편 전형준이 기고 있는 하우저의 논의에서도 대중예술의 감상층인 대중감상층은 “수용자집단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면상의 개념과는 대조적으로 수용자집단의 분열화를 의미한다”(하우저, 1983, 264쪽)고 주장한다.

9)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정 무협 소설 작품에 대한 평이나 전자책 서점에서 개별 무협 소설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리뷰를 보면 같은 작품에 대해서도 독자들의 반응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무협 소설 독자들이 결코 단일한 층이 아니며 그들 내부의 선호도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무협 소설은 장르 소설에 속하므로 장르와 수용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참조해 볼 수 있다. 조은기는 장르란 “문화상품의 생산과 소비에 작용하는 일종의 관습의 체계”(조은기, 2019, 77쪽)라고 정의하면서 “소비자는 같은 조건이면 과거의 소비를 통해 축적된 문화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르의 문화상품을 선택한다”(조은기, 2019, 78쪽)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무협 소설의 독자들이 무협 소설을 읽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문화자본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잘 알고 있는 분야이므로 이미 축적되어 있는 선지식을 활용하여 작품을 더 깊이 또는 폭 넓게 즐길 수 있고 그것이 계속 무협 소설을 읽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비록 단순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많은 무협 소설에서 무공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불교 사상 또는 도교 사상이랄지 여러 무협 소설 작가들의 서로 다른 성향, 무협 소설 내 하위 장르들에 대한 지식 등이 그런 선지식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무협 소설의 마니아가 무협 소설을 계속 읽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애초에 그들이 왜 순문학 또는 추리 소설이나 로맨스 소설과 같은 다른 장르의 소설을 선택하지 않고 무협 소설을 선택했는지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지닌다.

전형준(2003)은 대중예술에 대한 하우저의 논의를 참조하면서 무협 소설을 읽는 이유를 대중문학의 틀에서 접근한다. 하우저는 “경제 및 문화면에서 전혀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은 …… 미학적 가치 자체나 예술적 우열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영역, 즉 그들의 실제적

인 관심과 현실적 감각 및 노력의 영역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켰거나 혹은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느끼는 모티브에 대해 반응한다.”(하우저, 1983, 237쪽)고 주장한다.<sup>10)</sup> 즉 전형준이 하우저의 대중예술에 속한다고 보는 무협 소설은 그것을 읽는 독자의 불안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전형준, 2003, 7쪽).

독자의 욕구와 무협 소설을 읽는 행위를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전형준의 논의는 충분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형준이 제시한 독자의 불안이라는 요소는 매우 광범위한 것이어서 무협 소설을 읽는 전반적 행위를 포괄하는 데에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전형준이 이 불안의 감정 역시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당장 눈 앞에 다가 오는 현실적인 위협과 관련하여 느끼는 불안과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느끼는 막연한 불안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독자의 불안과 무협 소설의 독서를 연관시킨다 해도 그 불안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무협 소설의 내용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독자의 욕구와 무협 소설을 읽는 행위를 연결시키는 전형준의 논의에 일단 만족할 수밖에 없다.

---

10) 하우저의 이런 논의는 부르디외(1996)의 차별화의 감각과 필요한 것의 선택의 구분과도 연결될 수 있다. 부르디외는 민중계급은 “아비투스를 기꺼이 충족되어야 하는 필요성으로 정의한다”고 주장한다(부르디외, 1996, 620쪽).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무협 소설이 먼저 인터넷에 연재되다 사후에 책으로 출판된다는 점도 염두에 둘 수 있다. 우리 방송의 드라마와 관련하여 많이 지적된 바 있듯이 우리 방송 드라마는 처음부터 완결된 대본을 가지고 촬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쪽대본이라고 하여 촬영과 동시에 대본이 함께 쓰여지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보니 작품 자체의 완결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시청자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무협 소설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의 가능성이 가능하다. 신무협의 출현 이후에 두드러지듯이 대부분의 무협 소설은 우선 인터넷 사이트에 연재되다가 그중 독자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얻은 작품이 출간되는 경로를 밟는다.<sup>11)</sup> 그리고 매회 연재가 이루어질 때마다 댓글이나 조회수와 같은 방식으로 독자들의 평가가 이루어지며 그 평가는 다음 회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sup>12)</sup> 결국 무협 소설은 대중이 원하는 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설이며 무협 소설의 수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읽기 위하여 무협 소설을 읽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수용자들은 무엇을 읽고 싶어 한 것일까? 이제 2000년대 이후 우리 무협 소설의 몇 가지 흐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

11) 처음 PC통신의 동호회에서 시작되었던 이런 사이트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2002년에 고무림이란 사이트가 만들어졌다가 2006년에는 문피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네이버 시리즈나 카카오페이지 등 포털 사이트에서도 장르 소설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12)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오채지의 『창룡전기』 후기를 들 수 있다. 이 후기에서 오채지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마지철은 초반에 잠시 등장해 장일락의 개성 부각시킨 후 사라져 버릴 운명이었습니다. 한때 장일락을 만나 티격태격하면서 처음 의도와는 반대로 마지철의 개성이 두드러졌습니다. 끝내는 독자들로부터 주인공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리면서 제 스스로 살아남더군요. 이미 작가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커버린 거죠."(오채지, 2009:7권 후기)

### 3 2000년대 이후 한국 무협 소설의 몇 가지 흐름<sup>13)</sup>

#### 1) 성장소설의 쇠퇴

초창기 신무협의 작품들까지 포함하여 전형적인 무협 소설은 대체로 성장소설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전형적인 무협 소설의 구조가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원수에 의해 부모나 사부를 잃고 복수를 위해 무공을 수련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기연을 만나며 마침내 무공을 완성하여 복수를 이루는 식이라고 한다면 이 속에서 무협 소설의 내용은 무공의 수련과 완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이다. 물론 이 때 성장의 의미가 성장소설의 정의에서 이야기하듯이 주인공의 도덕적, 심리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무협 소설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신적 측면이 아니라 무공이라는 육체적 측면의 성장이기 때문이다.<sup>15)</sup> 하지만 무협 소설에서 핵심을 이루는 무공이 단지 무술이 아니라 공부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

13) 여기서 2000년대 이후의 몇 가지 흐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중 상당수의 경향은 1980년대의 이른바 구무협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무협 소설은 금강의 1988년작 [발해의 혼]에서 이미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실 서양 문학사의 가장 주요한 모티브 중 하나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듯이 과거 모티브의 차용이나 재해석이 무협 소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또 대중문화의 장르에 대한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대중문화의 영역에서는 이런 차용이나 재해석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2000년대 이후의 흐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00년대 이후 그런 모티브가 특정 작가의 특정 작품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작가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차용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는 이들 모티브가 반복적으로 차용될 만큼 무협 소설 수용자의 호응을 얻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14) 이를테면 신무협의 선두주자로 일컬어지는 좌백의 작품에서도 『대도오』, 『야광충』, 『비적유성탄』, 『소림쌍괴』 등을 제외하면 『생사박』, 『독행표』, 『금강불괴』, 『혈기린 외전』에서 『하급무사』까지 성장소설의 측면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외 『사마쌍형』 등 월인의 작품이나 특히 『농풍담정록』, 『쟁전구패』 등 임준욱의 작품도 전통적 성장소설의 틀을 지키고 있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15) 물론 무협 소설에서도 정신적 측면의 성장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무공을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른바 깨달음의 요소가 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무협 소설에서의 깨달음은 전형적인 성장소설에서와 달리 매우 추상적이고 단편적으로 서술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성장소설과 차이가 있다.

에 든다면 무협 소설을 성장소설의 범주에 포함시키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의 무협 소설에서는 이런 성장의 측면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고된 수련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어 무공을 완성하기 보다 처음부터 이미 완성된 주인공이 등장하는 무협 소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먼치킨’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하였는데 ‘먼치킨’이란 ‘압도적으로 강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무협 소설을 의미한다.<sup>16)</sup> 이처럼 압도적으로 강한 주인공의 설정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작가로는 김강현을 꼽을 수 있다. 초기 작품인 『투신』을 제외하면 『마신』, 『뇌신』, 『태룡전』, 『마룡전』, 『황금공자』, 『신비공자』, 『대박공자』 등 거의 모든 작품에서 김강현은 추가적으로 무공을 발전시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처음부터 적들을 모두 제압할 능력을 지닌 주인공을 내세운다.<sup>17)</sup> 이외 오채지의 『창룡전기』, 『칼 끝에 천하를 묻다』, 『전검왕』, 황규영의 『표사』, 『잠룡전설』, 『천하제일협객』, 『금룡진천하』, 『이것이 나의 복수다』, 『천년용왕』, 『참마전기』, 『천왕』, 『절대신마』, 『개천』, 『의기』, 『무림개발자』 등도 같은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으며, 신무협을 주도했던 좌백 역시 『비적유성탄』, 『소림쌍괴』, 『구

---

16) ‘먼치킨’은 신조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난점이 있다. 인터넷 백과사전인 나무위키의 관련 항목에 따르면 원래 ‘먼치킨’은 게임에서 사용되던 용어이며 특히 2010년대 이후에 이런 경향의 작품이 많이 제작되었다고 한다. ([https://namu.wiki/w/%EB%A8%BC%EC%B9%98%ED%82%A8\(%ED%81%B4%EB%A6%AC%EC%85%B0](https://namu.wiki/w/%EB%A8%BC%EC%B9%98%ED%82%A8(%ED%81%B4%EB%A6%AC%EC%85%B0), 2023년 12월 12일 확인). 이 용어가 무협 소설계에까지 넘어 와 ‘합리적’인 성장 과정 없이 처음부터 압도적으로 강한 주인공을 상정하는 무협 소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무협 소설 독자와 게임에 탐닉하는 사람들 사이의 연관성을 시사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7) 물론 환생 모티브를 사용한 『대박공자』 등에서는 김강현도 점차 무공이 강해지는 주인공을 설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주인공이 상대와의 대결에서 위기를 겪는 상황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대검파』 등에서 ‘먼치킨’의 요소를 받아들인 적이 있다. 장영훈의 『보표무적』, 『일도양단』, 『마도쟁패』, 『절대군림』, 『절대강호』, 『절대마신』, 『환생천마』, 『전직지존』 등은 주인공의 일정한 발전 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그들 주인공 역시 처음부터 매우 강자라는 점에서 절대적인 주인공을 설정하고 있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처음부터 압도적으로 강한 존재는 아니지만 성장의 과정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성장소설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 무협 소설도 있다. 김대산의 『금강부동신법』의 고대룡은 어릴 때 우연히 접한 금강부동신법의 요결을 익히고 있었지만 그 효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고수가 된다. 마찬가지로 김강현의 『대박공자』의 한유현은 일종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앱을 설치하는 것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무공을 습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쉽게 고수가 되는 존재이다.

## 2) 복수가 사라진 무협 소설

무협 소설에서 성장의 측면이 사라졌다면 그 배경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요소를 꼽을 수 있겠지만 그 중 중요한 것으로 2000년대 이후의 무협 소설에서 복수의 모티브가 별다른 중요성을 지니게 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김재국의 논의에서도 드러나듯이 전통적인 무협 소설에서 복수는 핵심 모티브였다. 그리고 복수를 위해서는 그를 위한 준비과정으로서의 성장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의 무협 소설에서는 복수의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당장 황규영의 『표사』의 서두를 인용해보자.

사내가 십 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병든 몸으로 혼자 살고 있었다. 과거 그가 집을 떠났을 때 그들 부자가 집안 식구의 전부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의 아버지가 혼자인게 당연하기도 했지만, 그는 자신이 없는 동안 식구가 늘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버지가 새살림을 차렸으리라 예상했다. 그렇게 확신했다. 그의 부친이 마음에 두고 있는 여인이 있었지만, 그를 의식해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집을 떠난 이유들 중 가장 큰 것이었다.....

그가 떠난 후 그에 대한 걱정으로 정기를 소모한 그의 아버지는 이제 죽어가고 있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정신으로는 일 년 전의 표물 수송에서 있었던 상처를 추스를 수가 없었다. 악화될 대로 악화된 몸은 이제 생명력이 거의 다해, 천하명약이 오거나 소림사의 대환단을 사용한다고 해도 살릴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는 그것을, 남은 생명력이 없음을 그의 아버지의 몸을 만져 보자마자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황규영, 2004:1권, 7-8쪽)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표사』의 주인공 한민택의 아버지는 단지 노환 때문에 또는 한민택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죽어 가는 존재이다. 따라서 아버지를 위해 한민택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제 그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할 뿐이다.<sup>18)</sup> 신무

---

18) 물론 인용문에서 나오듯이 한민택의 아버지는 표물 수송의 과정에서 산적에 의해 상처를 입고 한민택은 그에 대해 복수한다. 하지만 이 복수의 이야기는 전체 이야기 중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협의 신호탄을 올렸던 좌백의 『대도오』의 대도오가 그랬듯이 이제 대다수 무협 소설의 주인공은 과거의 은원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순수하게 그들의 선택 때문이다.

복수의 모티브가 약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역설적으로 2000년대 이후의 무협 소설 작가 중 전통적인 무협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되는 임준욱의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임준욱의 『농풍담정록』은 처절한 원한을 간직한 다섯 사람의 이야기에서 시작한다. 무당에서 억울하게 파문당한 운검과 재력에 밀려 억울함을 풀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결과 아버지를 잃은 제금천, 문파간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한을 품은 적송, 가난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한 우인복, 권력에 밀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왕서진이 그들이다. 하지만 이들 중 후에 오노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운검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 사람은 모두 악의 편에 서는 인물이다. 게다가 이들 다섯 명 중 누구도 『농풍담정록』의 주인공은 아니다. 정작 주인공은 비록 계모에게 학대를 받기는 하지만 그에 대해 원한을 전혀 품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마진명인 것이다.

### 3) 대립구도의 변화

세 번째로 찾을 수 있는 경향은 과거 무협 소설에 전형적이었던 대립구도가 변화했다는 점이다. 앞에서 신무협이 주변부의 부상을 통해 기존의 대립구도를 해체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지만 2000년대 이후의 무협 소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

아간다. 2000년대 이후의 무협 소설에서 과거 정도세력의 주축을 이루었던 문파나 세가에서 주인공이 나오는 사례는 비교적 제한적이다.<sup>19)</sup> 당장 무협 소설과 판타지를 결합하여 새로운 경향을 열었던 전동조의 『묵향』에서 묵향은 마교의 일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좌백의 『하급무사』에서는 주인공이 사과의 일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런 경향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작가는 장영훈이다. 장영훈은 데뷔작인 『보표무적』에서 원래 정파의 연합체인 무림맹과 관련있는 인물인 우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우지만, 그는 마도의 교주인 천마로부터 무공의 도움을 받는다. 나아가 『보표무적』에서는 무림맹과 마교가 연합하여 또다른 신비의 적대세력과 대립한다. 이런 경향은 『일도양단』에서도 연속되어 『일도양단』의 주인공 기풍한은 정도 무림에 속한 인물이지만 원래 출신은 마교이며 결국 마교로부터 일정한 도움을 받기도 한다. 나아가 『마도쟁패』에서는 아예 마교 출신의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김강현의 『천마는 조용히 살고 싶다』는 원래 천마였지만 환생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한다. 초우의 『녹림투왕』에서는 화전민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 산적을 꿈꾸던 관패가 산적이 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정도무림의 영웅이 되는 이야기가 전개되며, 오채지의 『창룡전기』의 장일락은 원래 마교의 원조가 되는

19) 물론 상당수의 무협 소설에서 주인공은 여전히 전통적인 정도세력의 일원이다. 전통적인 무협의 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임준욱의 『촌검무인』에서 포이종은 화산파의 속가제자이며, 『농풍담정록』의 사마진명 역시 무당파의 제자였다가 속가제자가 된 인물이다. 이외 신무협의 대표 작가 중 한 명인 장경의 『철검무정』의 녹유운은 비록 구파일방 중에서도 주변적인 존재로 설정되었지만 공동파의 제자이자 장문인에게까지 오른 존재이며, 좌백 역시 『소림쌍괴』와 『구대검파』에서 소림과 무당의 제자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이외 박찬규의 『태극검제』와 마수의 『무당학사』, 북미훈의 『무당신선』의 주인공은 무당파의 일원이며 한백림의 『무당마검』의 주인공은 무당파, 『화산질풍검』의 주인공은 화산파이다. 마도에 매우 호의적인 것처럼 보이는 장영훈조차 『절대강호』의 적호를 사파세력인 사약련에 대항하는 신군맹의 비밀병기로 설정하고 있다. 이 때 신군맹은 전통적인 정도세력과는 다소 다르지만 여전히 정도세력인 것은 분명하다.

마공을 익힌 사람이지만 오히려 마교를 타도하는 데 앞장선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전통적인 무협 소설이 정도와 사파 또는 마교의 대립구도를 설정하고 있다면 정과 사 또는 마의 구분이 모호해진 2000년대 이후의 무협 소설에서 대립구도의 양측은 어떻게 설정되고 있을까? 사실 현대사회의 스포츠에서처럼 경쟁적이기는 하지만 선과 악을 설정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이런 대립축의 설정이 불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협 소설에서는 단지 재미를 위해서 또는 서로 간의 발전을 위해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무공을 이용해 죽고 죽이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죽고 죽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선악구도, 또는 최소한 죽임을 정당화할 설정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2000년대 이후의 무협 소설은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김강현의 해결책은 혈교라든지 존마련 같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악의 집단을 설정하는 것이며 명칭은 다르지만 이 방식은 장영훈을 비롯한 여러 작가들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새로운 악의 집단의 성격은 무엇인가? 전통적인 무협 소설에서 사파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일반 백성들을 수탈하는 집단이었으며 마교는 종교적 이유로 또는 국가의 억압에 대항하여 악을 저지르는 집단으로 묘사된다.<sup>20)</sup> 반면 혈교를 비롯한 새로운 악의 집단이 악을 자행하는 데에는 뚜렷한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다. 때로 그들은

---

20) 이런 맥락에서 전통적 무협 소설이 지닌 보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 사파의 경우는 몰라도 마교의 경우에는 단지 국가의 정책과 위배된다는 이유로 악으로 규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무협 이후의 무협 소설이 특히 마교를 악의 집단에서 배제하거나 또는 오랜 대립의 결과 감정적으로 대립되는 세력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 소설이 지니고 있는 일정한 진보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저 강함에 탐닉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헐리우드 영웅물 영화에서처럼 때로는 그저 세계정복을 위해 악을 행하는 집단이기도 하다. 북미혼의 『무당신선』 강민성의 『사상 최강의 무림맹원』에서처럼 전체주의적 질서를 위해 세계를 재편하려는 목적을 지니기도 하지만 이처럼 뚜렷한 목적을 지닌 사례는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하지만 이처럼 전통적인 대립구도가 해체되는 것은 2000년대 이후의 무협 소설이 다시 한 번 헐리우드 영웅물 영화처럼 단순히 재미를 위한 오락물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sup>21)</sup> 그리고 그것의 한 가지 파생 결과는 무협 소설에 등장하는 무공의 변화이다. 여기에는 주인공이 기존의 정파세력의 인물이 아니라는 점과 1990년대 이후 널리 성행한 판타지물의 영향이 같이 작용하기도 했다. 즉 무공을 이루는 동작들이라 할 수 있는 정교한 초식이 약화되고 반면 그 위력은 마법을 연상시킬 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사실 전통적인 무협 소설에서 정파로 등장하는 주요 문파와 세가에는 허구적이기는 하지만 다들 나름의 독특한 무공들이 존재한다. 백보신권을 비롯한 소림사의 72종 절예라든지 태극혜검을 비롯한 무당파의 검공들, 화산파의 매화검법, 남궁세가의 창궁무애검법, 하북팽가의 오호단문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무공들은 신무협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구파일방이나 주요 세가가 주변으로 밀리다 보니 과거의 무협 소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무공들이 다수 등장한다. 그리고 이

---

21) 물론 헐리우드의 영웅물 영화가 단지 재미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평자들이 지적하듯이 거기에는 미국 중심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배후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협 소설에서는 이런 요소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들 새로운 무공의 위력은 김강현의 『마신』에서 단형우가 펼치는 삼재검법처럼 단순히 경천동지 정도를 넘어 차원의 벽을 부술 정도의 위력을 지니고 있다.

한편 대립구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무협 소설에서 철저한 대립항으로 설정되어 있던 세력들이 서로 연합하는 사례이다. 이와 관련하여 역시 대표적인 작가는 장영훈이다. 이미 데뷔작인 『보표무적』에서 정파와 마교의 협력을 그렸던 그는 이후의 여러 작품에서도 원래 적대적이었지만 연합하는 대립자를 상정하고 있다. 그를 위해 주인공의 출신을 이런 연합이 용이하도록 설정하기도 하는데 이를 테면 『절대군림』의 적이건은 정파의 핵심세력의 아들과 마교 교주의 딸의 아들로 태어난 인물이다. 초우의 『녹림투왕』에서는 정파와 정사중간의 인물, 마도의 연합이 이루어지며 북미혼의 『무당신선』, 류희운의 『선무』에서도 정사마 연합이 결성된다. 오채지의 『창룡전기』에서는 무림일통을 거의 달성한 마교를 타도하기 위해 사파와 정파가 연합하는 이른바 ‘흑백연합’이 결성되며 그 연합을 이끄는 존재는 원래 마공을 익혔지만 마에 사로잡히지 않으려 노력하는 장일락이다.

#### 4) 타락한 정파

앞의 경향과 연결되어 2000년대 이후의 무협 소설에서는 정파의 주변화를 넘어 타락한 정파의 모습을 그리는 작품이 많이 등장한다. 정확히 언제 어떤 작품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른바 ‘위선적인 정파’나 ‘정파의 위선’이라는 표현

이 2000년대 이후의 많은 작품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2001년작 『태극검제』에서 박찬규는 무당의 문하인 청수의 능력과 명성을 시기하여 그를 음모에 빠트려 파멸시키려 하는 같은 무당의 문하 송지, 유성, 유아를 등장시킨 바 있다. 이처럼 공명정대하지 않은 정파인의 모습은 이후 많은 무협 소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타락한 정파의 모습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작가로는 장영훈을 꼽을 수 있다. 마교와 연관된 인물이나 나아가 마교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즐겨 삼는 장영훈은 『일도양단』 등 여러 작품에서 정파 내부의 배신자를 등장시킨다. 초우의 『권왕무적』 역시 중원을 되차지하려는 몽고인의 흥계에 빠져 사욕을 추구하고 환락에 빠지는 정파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녹림투왕』에도 관패를 차지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제갈가의 인물들이 보인다. 김강현의 『마룡전』에는 존마련에 포섭되어 무림맹을 분열시키는 정파의 배신자가 나온다.

조금 결은 다르지만 황규영 역시 정파의 모습에 대해 비판적이다. 데뷔작인 『표사』에서 이미 독선과 아집에 빠진 소림승 지원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길으로만 군자인 척하며 비겁한 수를 일삼는 정의문의 문주 하무극을 등장시켰던 황규영은 『금룡진천하』에서 정파 내의 배신자를 등장시키더니 『천년용왕』과 『개천』, 『무림개발자』 등 이후의 여러 작품에서는 대의를 팽개치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파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sup>22)</sup>

---

22)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황규영의 후기 작품들은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무대로 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의 정파라고 하기는 어렵고 지배집단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할 것 같다. 어쨌든 왕을 포함하여 이들 지배집단은 백성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자신들만의 사익을 추구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정파의 타락이 특수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라는 점이다. 2000년대 이후의 무협 소설은 타락한 정파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정파도 문파를 이루게 되면 하나의 조직이 되고 집단으로서의 조직은 일정한 더러움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강현은 『마룡전』에서 “어쨌든, 마인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힘에 집착하는 한은 말이다” (김강현, 2011:6권, 270쪽)라는 말로 이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인식 하에서 2000년대 이후의 무협 소설에서는 혐의를 지향하는 정파 내에서도 이른바 더러운 일을 처리하기 위한 어둠의 조직의 존재를 당연시한다.

## 5) 비무림인의 활약

2000년대 이후 무협 소설에서 정도 세력의 쇠퇴가 두드러졌다면 그 때 등장하는 주인공은 어떤 인물들일까? 앞에서 “주변적인 것의 부상”이라고 이야기하였듯이 과거의 무협 소설에서 항상 적으로 규정되었던 사파와 마교 출신의 인물이 오히려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장영훈의 『보표무적』의 우이나 좌백의 『비적유성탄』의 왕필처럼 그 출신이 모호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집단도 있다.<sup>23)</sup> 즉 과거의 무협 소설에서 무림과 전혀 관련없는 것으로 설정되던, 또는 아예 등장하지 않았던 집단에서 주인공이 출현하는 것이다.

23) 그 단초는 좌백의 『생사박』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생사박』은 원래 소림의 제자였다가 파문당한 인물이 다시 무공을 갈고 닦아 소림으로 회귀하는 이야기이다. 과거의 무협 소설에서 파문당한 정파의 제자는 악인이 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좌백은 다시 정파로 회귀하는 설정을 취함으로써 정파의 처분이 항상 정의롭지는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상황은 다소 다르지만 임준옥의 『봉풍담정록』에 등장하는 오노인도 원래 무당파의 파문제자였지만 여전히 정파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인물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작가는 최현우이다. 최현우는 『학사검전』과 그 후속편인 『창룡검전』에서 과거시험에 장원급제하였으나 배경이 미미하여 한직으로 발령난 운현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운현은 황태자의 취미생활을 위해 무림과 관련된 일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무림방파에 전승되는 무공 근원의 통전적 접근에 관한 보고서”라는 자료를 접하고 거기에서 “백호수련검식”이라는 것을 습득하여 절대고수가 되며 무림에 연결된다. 이후 학사, 즉 선비를 주인공으로 설정한 작품이 다수 나타나는데 박동신의 『불량학사』의 경덕과 마수의 『무당학사』의 호현, 조진행의 『기문둔갑』의 왕소단과 『향공열전』의 서문영, 오채지의 『전검왕』의 흑도산도 원래 글공부를 주로 하던 학사가 어떤 계기를 통해 무림인으로 변화한 인물이다. 김대산의 『금강부동신법』의 고대룡은 선비 집안의 후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결말에서도 무림을 등지고 다시 글읽는 삶으로 돌아간다. 북미훈의 『무당선선』의 무한은 무당파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그 중 무공을 갈고 닦는 무파가 아니라 경전을 연구하는 학파에 속한 자였다. 정상수의 『자연검로』의 진자양은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의술과 학문에 있어서도 큰 성취를 이룬 인물로 그려진다.

정상수의 『병검무림』은 군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병검무림』의 송일륜은 원래 무가 출신이기는 하지만 징집되어 군에서 대장군까지 오른 인물이다. 무협 소설에서 일반적으로 군인은 집단전에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무공 자체는 그리 강하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는데 정상수는 비록 전쟁 중에 기연을 얻은 것이기는 하지만 군에서 갈고 닦은 무공이 무림을 제패하는 것

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비의 『풍운객잔』의 장기린 역시 군에서 무공을 취득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편광의 『비로무한』의 복리준은 군에서 활용하는 전령을 키우는 문파 출신으로 군문에 나가 장군의 지위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임준옥의 『진가소전』은 관인인 금의위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며, 초우는 『권왕무적』에서 역시 관부 집안, 그 중에서도 문관 집안에서 태어난 아운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오채지의 『창룡전기』에서는 금의위 소속의 청심자가 주인공 장일락을 도와 마교를 타도한다. 사실 무협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 ‘하수불범정수(河水不犯井水)’에서 알 수 있듯이 무협 소설은 대개 관과 무림의 불가침을 상정한다. 따라서 무협 소설에 관인이 등장하더라도 그들은 대부분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치고 만다.<sup>24)</sup> 그런데 2000년대 이후의 무협 소설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약사나 의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례도 있다. 김강현의 『뇌신』의 무영은 떠돌이 약장사이며 권용찬의 『철중쟁쟁』의 조일관은 의원이다. 전통적인 무협 소설의 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작가로 평가받는 임준옥 역시 『촌검무인』에서 농부인 포이중, 『농풍담정록』에서 표사인 사마진명, 『건곤불이기』에서 요리사인 반통미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24) 원래 관부와 무림이 서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설정은 대만의 무협 소설 작가 와룡생(臥龍生)의 설정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이런 설정이 등장한 배경으로는 강력한 무림 세력이 황실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흔히 꼽는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무협 소설과 실제 역사를 분리함으로써 무협 소설이 활동할 수 있는 상상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점이 지적된다(<https://namu.wiki/w/%EC%A0%95%EC%88%98%EB%B6%88%EB%B2%94%ED%95%98%EC%88%98>, 2023년 12월 21일 확인). 실제로 무협 소설 중에는 아예 시대적 배경이 등장하지 않는 소설도 많다.

## 6) 환생한 주인공들

2000년대 이후, 특히 2010년대 이후의 무협 소설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모티브는 환생이다. 김강현의 『황금공자』의 금철휘는 혈룡귀갑대주가 항주제일장인 금룡장의 소장주로 환생한 존재이며, 역시 김강현의 『천마는 조용히 살고 싶다』는 부하들의 배반 때문에 죽은 천마 벽태산이 환생하여 배신의 배후를 척결하는 내용이다. 신갈나무의 『환생표사』의 이정룡은 원래 쟁자수였다가 표행 중 죽임을 당했던 사람으로서 천룡표국의 넷째 아들로 환생하여 재기를 노리는 천마성교의 음모를 분쇄한다. 김대산의 『절대외공』의 이검명은 신체적 한계를 비관하여 무저갱에 몸을 던졌다가 단지 노야라고 알려져 있는, 탁월한 신체를 지닌 존재의 몸을 빌어 다시 태어난다. 이은의 『약선은 천무지체로 환생하였다』에서는 약선이었던 강초량이 음모에 걸려 목숨을 잃은 후 사파인 흑천방주의 외동아들 사성천으로 환생하며, 장영훈의 『환생천마』에서는 무림맹주였던 천하진이 산동의 벽씨검문의 외동아들인 벽리단으로 다시 태어난다.

엄밀한 의미에서 환생과 다소 거리가 있지만 그에 준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사례는 대개 판타지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무협 소설인데 류희운의 『선무』의 가유량은 한국의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다가 과거의 중국으로 환생하여 무림인의 삶을 살아간다.<sup>25)</sup> 역시 환생은 아니지만 일종의 기연을 통해 환생과

---

25) 사실 김대산의 『김부장이 간다』 이후 현실과 무림세계를 오가는 소설은 너무 많아 일일이 거론 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이 글에서는 이런 소설을 대개 판타지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이 글의 논의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유사한 삶을 살아가는 사례도 있다. 김강현의 『대박공자』에서 한유현은 원래 별 볼일 없는 존재였지만 복수를 추구하는 천괴 곤왕의 염원을 받아 무림제일고수로 우뚝 선다. 김대산의 『몽상가』는 한국의 한 재벌 그룹의 사원인 김철민이 꿈 속에서 중원의 삶을 살며 현실과 꿈이 교차하는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환생의 결과 새로 얻은 몸이 대부분 별 볼일 없는 존재라는 점이다, 『환생표사』의 이정룡은 네 형제 중 가장 세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죽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짝사랑하던 여인의 사랑을 얻지 못해 호수에 투신한 존재이다, 『황금공자』의 금철휘는 항주제일장인 금룡장의 소장주이지만 욕심 많은 호색한인데다 무공이라고는 모르는 뚱뚱한 인물이며, 『환생천마』의 벽리단 역시 가문의 수치이자 쓰레기 취급을 받는 존재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전생의 삶에 대한 기억의 도움을 받아 점차 영웅으로 재탄생한다. 실패했던 전생에서의 삶이 후생에서의 성공을 이끄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7) 우리나라 사람이 주인공인 무협 소설

원래 무협 소설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듯이 무협 소설의 무대는 중국이며 무협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역시 대부분 중국인 또는 무협 소설의 표현을 따르자면 중원인이다. 좌백은 무협 소설의 무대가 되는 중국은 그 자체가 상상적 공간의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 바 있거니와 이처럼 중국이 무대가 되고 중국인이 주인공이 되는 데에는 우리 고유의 무협 소설의 전통

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의 무협 소설에는 비록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는 무협 소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와 관련하여 첫 신호탄을 올렸던 작가는 초우이다. 초우는 2001년작 『질풍금룡대』에서 자부신경을 둘러싼 조선왕조와 옛 고려 무사 사이의 대결을 하나의 축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후 조돈형은 2002년에 1부가, 2004년에 2부가 발간된 『궁귀검신』에서 장백산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신비의 궁술과 검술을 익힌 을지소문과 을지호가 각각 중국을 무대로 활약하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신무협의 대표 작가 중 한 명이었던 장경 역시 2003년작 『황금인형』에서 명의 연왕 출생의 비밀을 담고 있는 ‘황금인형’을 찾기 위해 고려의 신비문파의 계승자인 장백노사의 제자 성인학과 수돌, 산돌, 해원등이 활약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주인공이 우리나라 사람인 것을 넘어 아예 우리나라를 무대로 설정한 무협 소설도 있다. 장경의 『황금인형』에도 우리나라에서의 활동이 다소 나오지만 허소산의 『독경』의 주요 무대는 아예 고려의 개성이다. 또 명확하게 우리나라라고 이야기되지는 않지만 황규영의 여러 작품에서도 우리나라가 무대가 되고 있다. 『천년용왕』에서 한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온강이라는 강과 그 주변의 도시로 성수, 이춘, 대흥, 이수 등의 지명을 사용했던 황규영은 『참마전기』와 『천왕』, 『개천』 등에서 안도, 경도, 기주, 나주, 청도, 상주, 해주, 주도 등 우리나라의 9개도를 연상시키는 지명을 사용하며 나라 이름도 이들 9개도의 결합을 암시하는 구천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우리나라 사람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주인공의 무공에 도움을 준 것으로 그리거나 우리나라 사람이 중요한 활약을 하는 무협 소설도 적지 않다. 북미혼의 『무당신선』에서 무한이 사용하는 천부경의 무공은 원래 동방의 선인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무한은 동방의 선인이 남긴 공력을 물려 받기도 한다.

## 8) 강시의 습격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경향은 2000년대 이후의 무협 소설에서 강시가 등장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 강시는 전쟁터에서 죽은 시체를 고향으로 운반하기 위해 시구술이라는 주술을 사용하여 시체 스스로가 움직이도록 한 것이라고 한다. 좌백의 『독행표』에서 시구술을 쓰는 문파인 강시당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무협 소설에서 강시를 병기로 활용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매우 많은 무협 소설에서 강시가 등장한다. 당장 김강현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강시가 등장하며 북미혼의 『무당신선』, 김대산의 『절대외공』, 황규영의 『이것이 나의 복수다』 등에도 강시가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오채지의 『혈기수라』와 『창룡전기』, 류희운의 『창천마흔』도 강시를 등장시키고 있다.

물론 강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무협 소설은 없다. 정의상 강시는 이지가 없는 존재여서 주인공이나 중요 조연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작품에서는 강시가

나름대로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김대산의 『절대외공』에서 원래 서장의 라마승이었다가 음모에 빠져 강시가 되었지만 주인공 이검명의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이지를 회복하며 이검명을 도와주는 역할로 나오는 철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처럼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무협 소설에서 강시는 주인공의 위상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시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강시는 도점으로 벨 수 없는 단단한 몸을 가진 존재로 설정된다. 따라서 이런 강시는 절대적인 무력을 지닌 소수의 인물 외에는 상대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존재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무협 소설의 주인공은 절대적인 무력을 지니고 있든지 또는 강시에 천적인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어 강시를 쉽게 처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전투의 중심에 서게 된다. 강시가 지닌 기운을 일종의 영역처럼 섭취하는 김강현의 『천마는 조용히 살고 싶다』의 벽태산은 강시의 천적인 대표적 인물이다.

#### 4 다른 대중문화 장르와의 상호작용

3장에서 이야기한 무협 소설의 흐름은 결코 무협 소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유사한 흐름을 다른 대중문화 장르, 특히 같은 서사 장르인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경향의 일치는 어떤 배경에서 어떤 기제에 의해 나타나는 것일까? 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각각의 경향에 대한 별도의 상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나

그런 분석은 이 연구의 범위를 넘는 것이다, 여기서는 다음 장에서 경향의 일치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일치가 나타난 기제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를 기약하면서 일치가 나타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알아 보는 것으로 그치도록 하겠다.<sup>26)</sup>

정파가 쇠퇴하고 정사마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사실 오늘날의 현실 세계에서 정과 사, 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며 양민을 괴롭히는 조폭 집단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미 상당 부분 합법화되었으며 마라고 부를 수 있는 반국가적 종교단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마에 해당하는 존재는 정치의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독재 세력과 대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주된 악으로 설정되었던 북한이 바로 그것이다. 1987년의 형식적 민주화 이전 독재정권은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되도록 만들었으며 마찬가지로 1980년대까지의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북한이 일종의 광신도 집단이자 뿔 달린 도깨비로 상징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1987년 형식적 민주화의 실현과 1980년대말의 사회주의권 붕괴와 남북간 힘의 격차가 역전되면서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는 바뀌기 시작한다.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양극화가 약화되고 다극화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다소의 부침은 있

---

26) 이미 1986년에 이현세 원작의 만화 『공포의 외인구단』이 영화화되고 천계영 원작의 만화 『궁』이 2006년에, 윤탤희 원작의 만화 『미생』이 2014년에 드라마화된 바 있듯이 소설이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제작된 경우에는 이 영향관계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이처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이른바 트렌드의 형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사례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지만 북한과 일련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는 북한과 관련된 변화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하자.

북한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시도는 만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94년부터 일간스포츠에 연재되기 시작한 이현세의 『남벌』이 일본과의 대립이라는 틀을 활용하여 남북이 군사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상황을 그렸던 것이다. 이후 남과 북의 협력 또는 친밀한 만남을 묘사하는 영화와 드라마 등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2000년에 개봉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근무하던 남북 군인 사이의 우정을 그리더니, 2005년에 개봉된 『웰컴 투 동막골』에서는 순수의 고장인 동막골을 지키기 위해 남한과 북한, UN군의 병사가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후 1991년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의 남북 단일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영화 『코리아』가 2012년에 개봉되었고, 2017년에는 남한으로 스며든 북한의 마피아 조직을 잡기 위한 남북의 공조 수사에 대한 이야기인 『공조』가, 2019년에는 백두산의 화산 폭발에 대응하여 남북이 협력한 이야기인 『백두산』이 개봉되었다. 비슷하게 KBS에서 방영된 2009년작 드라마 『아이리스』는 암살 및 쿠데타, 테러 등을 조장하는 비밀 조직 아이리스가 남북정상회담을 저지하고 남북 간 전쟁을 유도하고자 광화문에 핵 테러 계획을 세운 것을 막기 위해 남과 북의 요원들이 협력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tvN의 2019년작 『사랑의 불시착』은 돌풍으로 인한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2세와 그녀를 숨기고 지키다 사랑하게 되는 북한의 특급 장교의 로맨스를 그리고 있다.

비무림인의 등장과 비견될만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우리 텔레비전의 로맨스 드라마에서 주된 등장인물은 이른바 재벌2세이거나 직업이 분명하지 않은 존재였다. 그들만이 로맨스 드라마의 주인공에게 요구되는 여유로운 시간 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90년대말 이후 우리 드라마에서는 이른바 전문직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다. 1997년 MBC에서 방영된 『의가형제』를 필두로 의사, 변호사, 디자이너, 프로듀서, 기자, 제빵사, 요리사, 검사, 작가에다 심지어 지휘자까지 온갖 종류의 직업군들이 드라마의 주인공을 차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경향은 물론 이른바 미드 즉 미국 드라마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무협 소설에서 비무림인이 등장하는 것과 나아가 정파의 쇠퇴와도 연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환생과 연관된 드라마는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환생은 아니지만 SBS의 2013년 작 『별에서 온 그대』와 tvN의 2016년 작 『도깨비』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존재를 등장시키더니, JTBC의 2022년 작 『재벌집 막내아들』은 총수 일가의 오너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가 재벌가의 막내아들로 회귀하여 인생 2회차를 사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sup>27)</sup>

우리나라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또는 우리의 민족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드라마나 영화도 다수 만들어졌다. 2000년대 초반에 쏟아져 나온 여러 사극이 대표적이다. 해상왕 장보고를 다룬 KBS의 『해신』(2004-2005), 고구려의 탄생을 다룬 MBC의 『주몽』(2006-2007), 발해 건국의 이야기를 다룬 KBS의

27) 이는 황규영의 『천년용왕』이나 성상현의 『천년무제』가 이른바 다시 젊어진다는 반로환동이나 특수한 내공의 영향으로 천년여를 살아남는 인물을 그린 후 환생 무협 소설이 쏟아져 나온 것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조영』(2006-2007), 연개소문을 주인공으로 한 SBS의 『연개소문』(2006-2007), 광개토대왕의 이야기를 다룬 MBC의 『태왕사신기』(2007) 등이 비슷한 시기에 방영되었으며 이들 드라마는 모두 높은 시청률로 인기를 끌기도 했다. 또 영화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다루며 지금도 최다관객 동원 영화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명량』(2014)이 개봉된 바 있다. 특히 『주몽』과 『대조영』, 『연개소문』, 『태왕사신기』가 방영된 시기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 역사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중국의 이른바 동북공정이 펼쳐졌던 시기로서 우리의 고대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강시의 습격과 관련해서는 근자에 들어와서 여러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물론 거기에 등장하는 것은 강시가 아니라 서구식의 좀비이다.<sup>28)</sup> 봉준호 감독의 2013년작 『설국열차』에서 등장한 좀비는 이후 다수 우리 영화의 주요 장치 중 하나로 떠올랐다. 연상호의 2016년작 『부산행』에서 본격적으로 좀비를 다룬 후 김성훈의 2019년작 『킹덤』, 웹툰을 원작으로 한 2022년 이재규의 『지금 우리 학교는』으로 이어진 것이다.

사실 무협 소설과 다른 대중문화 장르에서 나타나는 이런 공통적 흐름의 영향관계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런 흐름이 이를테면 만화나 판타지 소설 같은 다른 장르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고 외국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궁』이나 『미

28) 강시가 시체를 주술사가 움직이는 것이라면 좀비는 드라큘라처럼 일종의 감염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이다. 서구식 영화나 드라마에서 강시가 아니라 좀비를 등장시킨 이유는 문화적 전통 뿐 아니라 대량의 시체를 전제하는 강시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처럼 웹툰이 드라마화된 것이 적지 않고 전문직 드라마처럼 미국 드라마의 영향을 받은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런 추론은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더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국내외적으로 대중문화의 교류가 활성화된 것을 감안해 본다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난점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관심을 모은 모티브에 대해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는 엄밀한 영향관계에 대한 분석은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 채 경향의 공통성이 지닌 의미만 짚어보기로 한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도 각각의 경향들이 지닌 의미를 정치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훨씬 더 방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개략적인 의미만 짚어보도록 할 것이다.

## 5 2000년대 이후 무협 소설의 흐름이 지닌 의미

2000년대 이후 무협 소설에서는 왜 이전과 다른 흐름들이 나타난 것일까? 그리고 이런 흐름이 단지 무협 소설에서 뿐 아니라 다른 대중문화의 장르에서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이 가능한 것일까?

무협 소설에서 나타난 다양한 흐름을 하나의 틀에서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이 흐름 자체가 워낙 다양하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서서도 지적했다시피 무협 소설의 독자가 통일된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무협 소설의 다양한 흐름은 이 다양한 독자 집단의 분산되어 있으면서도 때로는 합쳐지는 욕망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시론적으로 몇 가지 욕망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해석하는 관점에서의 혼란과 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의 관점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망이다. 정파의 쇠퇴가 보여주는 것은 세계를 해석하는 관점의 혼란이다. 정과 사, 또는 정과 마로 구분되는 단순한 이분법적 관점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인 것이다.<sup>29)</sup> 여기서 이들은 새로운 적을 찾게 된다.<sup>30)</sup> 불행하게도 그 적은 모호하다. 김강현의 작품에서처럼 단지 강함을 추구하는 존재일 수도 있고 북미혼의 작품에서처럼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존재일 수도 있으며, 초우나 황규영의 작품에서처럼 이른바 외세일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도 그 적이 현실의 누군가와 정확히 대응되지는 않는다. 이는 1980년대까지의 무협 소설에 등장했던 마교나 사파가 현실 정치에서의 북한과 연결될 수 있었던 점과 차이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도 있다. 오늘날 우리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좀비와 비견될 강시의 등장이가 그를 보여준다. 원래 프랑켄슈타인이나 좀비 등이 노동 계급의 대두에 대한 중산층의 위협감에서 등장한 것이라는 일반적인 해석에

---

29) 199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하여 흔히 지적되었던 것이 갈등의 다원화이다. 과거 계급 간의 갈등으로 단순화되었던 갈등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의 무협 소설은 이런 혼란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30) 물론 이것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의 상황에 만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무협 소설의 독자가 전체 인구에 비하면 극히 소수이고 그들의 욕구 역시 소수 집단의 것일 수 있다는 점에어서이다.

서 드러나듯이 이질적인 존재의 등장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표상한다. 특히 좀비나 강시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존재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힘의 압력 속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힘의 압력은 무협 소설의 주된 독자인 젊은 세대의 상황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연결되어 그 원인을 특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환생의 모티프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 불만을 지니며 이번 생은 포기한다는 이른바 ‘이생명’의 신조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2000년대 이후 특히 2010년 이후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에게 삶은 매우 절망적인 것이었다. 여기서 무협 소설과 다른 대중문화의 장르 작품들은 새로운 생으로의 환생을 통해 다시 시작하는 통로를 열어 놓은 것이다. 물론 그 통로는 단지 상상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것이지만 현실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대리만족의 수단이 되었을 수는 있다.

마지막으로 무협 소설을 비롯한 대중문화의 수용자들이 환상을 꿈꾸면서도 그 환상에 일정한 합리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무협 소설을 비롯한 대중문화의 여러 장르를 통해 2000년대 이후의 수용자들은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을 획득하기를 원하며 나아가 현실의 불만을 기적적으로 해소할 새로운 계기를 꿈꾸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변화가 여전히 합리적이기를 바라고 있다. 환생한 주인공들이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이른바 백마를

타고 있는 왕자가 아니라 문제가 많은 존재라는 점이 그를 보여주고 있다. 즉 2000년대 이후의 무협 소설 독자들은 변화를 원하지만 그 변화가 전통적인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기적이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또는 그런 기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 인식 속에서 그들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발전된 삶을 만들어갈 방법을 모색한다. 기억을 활용하는 환생한 무협 소설 주인공들의 모습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합리적인 존재와 다르지 않다.<sup>31)</sup>

## 6 나가며

지금까지 2000년대 이후 무협 소설에서 나타나는 여러 흐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단지 무협 소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대중문화 장르에도 상당 부분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흔히 무협 소설을 비롯한 대중문화는 일시적인 오락을 위해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록 일시적인 것일지라도 대중문화를 즐기는 대중이 무엇에 재미를 느끼는 가에는 상당한 의미가 존재한다. 텔레비전의 채널이 늘어나고 과거의 프로그램들을 재방영하는 채널이 많아지면서 과거 감동이나 웃음을 주었던 드라마나 코메디 프로그램이 다시 보았을 때 그 만큼의 감동이나 웃음을 주지 못하는 사례를 경험한 사람들이 적

31) 물론 그들이 여전히 환생이라는 근원적인 비합리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되어야 한다. 이는 엄혹한 현실에 대해 그들이 느끼는 절망감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최종적인 해결책까지 비합리적인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의 의미는 충분히 고려해 볼만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 않을 것이다.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보는 데도 왜 그에 대한 느낌은 달라지는 것일까? 그것은 프로그램을 보는 상황이 달라졌고 그에 따라 수용자 역시 바뀌었기 때문이다. 결국 대중문화는 특정 시점의 대중의 정서와 욕망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주요 통로의 하나이다.

무협 소설도 마찬가지이다. 무협 소설의 독자층은 비교적 제한되어 있지만 그 제한된 독자들이 어떤 욕망을 지니고 있고 그 결과 무협 소설의 경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다원화된 우리 사회에서 전체 사회구성원을 아우르는 욕망을 상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점과도 연관되는 것이지만, 무협 소설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중문화 장르와 상호작용을 주고 받는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그런 욕망이 단지 무협 소설 독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이기도 하다.

이 글은 무협 소설을 통해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어떤 종류의 욕망이 존재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거기에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해석할 하나의 관점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망과 막연한 불안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 현실에 대한 불만을 대리로나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망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글의 분석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당장 무협 소설의 체계적인 수집과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이 글은 내가 중고서점이나 전자책 사이트 등에서 구할 수 있었던 무협 소설에만 기반을 두고 쓰여졌다는 점에서 무협 소설 전체의 흐

름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무협 소설이 그냥 망각 속으로 묻혀 버리기 전에 정리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추후 무협 소설의 독자층에 대한 분석이나 무협 소설과 다른 대중문화 장르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논문 투 고 일: 2024.01.12.
- 심 사 완 료 일: 2024.01.22.
- 계 재 확 정 일: 2024.01.30.

## 참고문헌

- 김재국(2003). 「한국 무협소설의 존재 양상에 관한 고찰」, 『한국 문예비평연구』 no 13.
- 김현(1969). 「무협 소설은 왜 읽히는가-허무주의의 부정적 표출」, 『세대』, 1969년 10월호, 김현전집, 제2권, 문학과지성사, 1991.
- 대중문학연구회편(1995). 『대중문학이란 무엇인가』, 평민사.
- 대중문학연구회편(2001). 『무협 소설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 량서우중(김영수역)(2017). 『무협작가를 위한 무림세계 구축교전』, 들녘.
- 삐에르 부르디외(1996).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 아놀드 하우저(최성만, 이병진역)(1983). 『예술의 사회학』, 한길사.
- 이진원(2008). 『한국무협소설사』, 도서출판 채륜.
- 전형준(2002). 「무협소설을 보는 두 개의 시각에 대하여」, 『동아 문화』 vol.40.
- 전형준(2003). 『무협소설의 문화적 의미』, 서울대학교출판부.
- 조은기(2019). 「문화상품에 대한 이해」, 정준영 외, 『문화산업과 문화기획』, KNOU PRESS.

## 무협 소설 자료<sup>32)</sup>

- 권용찬(2007-2008). 『칼』 1-7, 드림북스.  
권용찬(2011-2012). 『용중신권』 1-7, 드림북스.  
김강현(2007-2008). 『마신』 1-8, 드림북스.  
김강현(2008-2009). 『뇌신』 1-8, 드림북스.  
김강현(2009). 『태룡전』 1-8, 청어람.  
김강현(2011). 『마룡전』 1-8, 드림북스.  
김강현(2011-2012). 『황금공자』 1-9, 드림북스.  
김강현(2015). 『신비공자』 1-9, 라온이엔엠.  
김강현(2016). 『대박공자』 1-9, Arete.  
김강현(2020). 『천마는 조용히 살고 싶다』 1-10, 라온이엔엠.  
김대산(2005-2006). 『금강부동신법』 1-8, 청어람.  
김대산(2023). 『절대외공』 1-10, 청어람.  
류희윤(2009-2011). 『창천마흔』 1-12, 파피루스.  
마수(2010-2012). 『무당학사』 1-11, 워크비전.  
박동신(2011-2012). 『불량학사』 1-12, ㈜로크미디어.  
박찬규(2001-2002). 『태극검제』 1-9, 해우.  
방수윤(2007-2010). 『허부대공』 1-12, 드림북스.  
성상현(2009). 『낙향무사』 1-10, 파피루스.  
성상현(2010-2012). 『천년무제』 1-10, 파피루스.  
신갈나무(2018-2020). 『환생표사』, KW북스.  
오채지(2008-2009). 『창룡전기』 1-7, 동아&발해.  
오채지(2011). 『혈기수라』 1-8, 파피루스.  
오채지(2013). 『칼 끝에 천하를 묻다』 1-6, 파피루스.

---

32) 이 자료들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중 이 글을 쓰기 위해 주로 인용한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 오채지(2014). 『전검왕』 1-15, 파피루스.
- 월인(2000). 『두령』 1-4, 청어람.
- 월인(2002-2004). 『사마쌍협』 1-13, 청어람.
- 월인(2005-2006). 『천룡신무』 1-9, 청어람.
- 이은(2023). 『약선은 천무지체로 환생하였다』, KWBOOKS.
- 임준욱(2000). 『진가소전』 1-3, 청어람.
- 임준욱(2000). 『농풍답정록』 1-4, 시공사.
- 임준욱(2001-2002). 『진곤불이기』 1-5, 마술램프.
- 임준욱(2002). 『촌검무인』 1-2, 청어람.
- 임준욱(2003). 『괴선』 1-6, 청어람.
- 임준욱(2005-2006). 『쟁천구패』 1-8, 청어람.
- 장경(1996). 『철검무정』 1-3, 도서출판 뫼.
- 장경(1997). 『천산검로』 1-4, 도서출판 뫼.
- 장경(2009-2010). 『산조』 1-6, (주)로크미디어.
- 장영훈(2004). 『보표무적』 1-7, Arete.
- 장영훈(2005-2006). 『일도양단』 1-7, 청어람.
- 장영훈(2007-2008). 『마도쟁패』 1-8, 청어람.
- 장영훈(2009-2010). 『절대군림』 1-14, 청어람.
- 장영훈(2011). 『절대강호』 1-9, 청어람.
- 장영훈(2012-2013). 『절대마신』 1-10, 파피루스.
- 장영훈(2017). 『환생천마』 1-8, JHS BOOKS.
- 장영훈(2019). 『전직지존』 1-11, 라온이엔엠.
- 정상수(2003). 『자연검로』 1-5, 글담.
- 정상수(2004). 『병검무림』 1-6, 북샷.
- 조진행(2004-2006). 『기문둔갑』 1-10, 북박스.
- 조진행(2008). 『향공열전』 1-10, 드림북스.

- 좌백(1995). 『대도오』 1-3, 도서출판 뫼.
- 좌백(1995). 『생사박』 1-3, 도서출판 뫼.
- 좌백(1995-1996). 『야광충』 1부 1-3, 2부 1-3, 도서출판 뫼.
- 좌백(1996). 『금강불괴』 1-4, 도서출판 뫼.
- 좌백(1998). 『독행표』 1-2, 시공사.
- 좌백(1999). 『혈기린외전』 1-6, 시공사.
- 좌백(2000). 『금전표』 1-3, 시공사.
- 좌백(2003-2005). 『비적유성탄』 1-5, 북이랑.
- 좌백(2015). 『소림쌍괴』 1-5, 새파란 상상.
- 좌백(2021). 『구대검파』 1-7, 새파란 상상.
- 주비(2010-2012). 『풍운객잔』 1-18, 뽀 미디어.
- 진산(1999). 『사천당문』 1-3, 시공사.
- 초우(2001). 『질풍금룡대』 1-5, 드림필드.
- 초우(2004-2008). 『권왕무적』 1-18, 파피루스.
- 초우(2005-2007). 『녹림투왕』 1-11, 청어람.
- 최현우(2003-2007). 『학사검전』 1-9, 북박스.
- 최현우(2009-2012). 『창룡검전』 1-6, 드림북스.
- 편광(2023). 『비로무한』 1-8, 문피아.
- 한성수(2006). 『만검조종』 1-7, 청어람.
- 허소산(2011-2012). 『독경』 1-10, 청어람.
- 황규영(2004-2005). 『표사』 1-8, 청어람.
- 황규영(2007). 『천하제일협객』 1-7, 청어람.
- 황규영(2007). 『금룡진천하』 1-10, 청어람.
- 황규영(2008). 『천년용왕』 1-6, 동아&발해.
- 황규영(2008). 『이것이 나의 복수다』 1-7, 동아&발해.
- 황규영(2009). 『참마전기』 1-7, 드림북스.

- 황규영(2009). 『천왕』 1-7, 드림북스.
- 황규영(2010). 『절대신마』 1-6, 드림북스.
- 황규영(2010). 『개천』 1-8, (주)북스비전.
- 황규영(2014). 『의기』 1-6, 글쓰는 사람들.
- 황규영(2015). 『무림개발자』 1-5, 글쓰는 사람들.

## **Some Currents of the Korean Oriental Fantasy Novels since the 2000s.**

**Joonyoung Chung**

Dept. of Culture & Liberal Arts KNOU

This article examines several trends in Korean oriental fantasy novels since the 2000s. After the emergence of new oriental fantasy novels in the mid-1990s, oriental fantasy novels began to show some different trends from the past. As new oriental fantasy novels gained attention and many new writers appeared, these trends became more diverse after the 2000s. Given that oriental fantasy novels are novels that most directly reflect readers' desires, these various trends can help provide a glimpse into the desires of the members of our society since the 2000s. The decline of coming-of-age novels, oriental fantasy novels with the disappearance of revenge, changes in the structure of confrontation, the corruption of forces for good, the activities of non-Murim people, reincarnated protagonists, oriental fantasy novels with Koreans as the main characters, and attacks by jiangshi are representative examples of these new trends. However,

these trends in oriental fantasy novels are not just limited to oriental fantasy novels, but can also be commonly found in other popular culture genres. And these common trends include confusion in terms of interpreting the world around oneself, the desire to acquire a single perspective to overcome this confusion, a vague anxiety whose cause is unknown and the desire to overcome it. It seems that the desire to resolve the dissatisfaction with reality, which is widespread despite the inability to do so, and the desire to resolve this desire rationally, are mixed.

| **Key Words** | Korean oriental fantasy novel, new oriental fantasy novel, coming-of-age novel, revenge, forces for good, non-Murim people, reincarnation, jiangshi